

2022 문화계 결산 <2> 공연

소극장 축제·영화제 활발...광주시향-임윤찬 음반 발매

코로나19 3년 만에 거리두기 해제 공연계 숨통
광주서 '대한민국 소극장열전'·창제작 페스티벌
전 좌석 오픈 '여성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개최
시립오페라단 '카르멘' 발레단 '돈키호테' 공연

2022년은 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해였다.

올해 4월 18일을 기준으로 공연장 띄어앉기가 사라졌고 관객 수 제한 역시 찾아볼 수 없게됐다. 운영시간 단축도 해제돼 공연계는 숨통이 트이고 관객들은 하나 둘 공연을 즐기기에 걸음하기 시작했다.

먼저 소극장 축제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우선 7월에는 구미, 춘천, 부산, 대구, 전주를 비롯해 광주까지 총 6개 지역의 극단이 함께 하는 '제 11회 대한민국 소극장열전'이 광주에서 열렸다. '월화수목금토일 여기, 연극이 있다'를 주제로 열린 소극장열전은 푸른연극마을이 운영하는 씨어터 연바람, 예술극장 통 등에서 7일간 진행됐다.

10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사)한국소극장협회 광주지회가 공동 주최하는 '광주소극장축제'가 약 한달간 열렸다.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한 소극장 축제는 광주지역의 예린소극장, 예술극장 통, 씨어터 연바람, 공연일번지, 문예정터, 지니아트홀 등 6개 소극장을 비롯해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여졌다.

소극장 창제작 킨텐츠 페스티벌 '작은 무대에 부는 바람'도 11월 한달간 광주 소극장 씨어터 연바람에서 열렸다. 전국 9개 지역 소극장에서 제작한 9편의 작품 중 5편이 광주의 씨어터 연바람에 배급돼 광주 시민들을 만났다.

또 변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각종 영화제가 개최됐다. 11월에는 '이기는 목소리'를 주제로 한 광주여성영화제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좌석 개방에 제한을 받았던 지난 3년과 달리 올해는 전 좌석 오픈으로 더욱 많은 관객을 수용했다. 영화 55편(장편 17편, 단편 38편)은 광주 극장과 CGV 금남로에서 선보여졌다.

특히 올해 처음 시도한 '마스터클래스'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보였다. 첫 주자는 개봉 10주년을 맞이한 영화 '화차'의 변영주



피아니스트 임윤찬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윤이상 곡 '광주여 영원히'와 임윤찬과 협연곡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등이 담긴 음반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했다.<광주시향 제공>

감독으로, 영화 상영 후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광주 여성 예술가들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네트워크 시간'과 광주 연극계에 대해 논하는 '포커스 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의 광주시립예술단 공연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먼저 광주시립교향악단은 GSO 오티움 콘서트를 비롯해 실내악 시리즈를 다섯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무엇보다 광주시향이 올해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임윤찬과의 협업 및 실황 음반발매다. 광주시향은 만 15세의 나이로 지난 6월 반 클라이버 콩

쿠르 최연소 우승을 기록한 임윤찬과 협업했다.

10월 6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 정기연주회 '베토벤:윤이상'에서 함께 연주했다.

당시 공연 티켓 예매 장은 일찍이 전석 매진돼 이른바 '피켓팅'을 방불케하기도 했다. 이날 연주된 곡은 윤이상 곡 '광주여 영원히'와 사무엘 바버의 '협을 위한 아다지오',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황제' 등이다. 또 이를 뒤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광주시향과 임윤찬의 무대는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 유니버설 뮤직을 통해 11월 28일 실황앨범으로 발매됐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프랑스 작가 메리메의 소설

을 원작으로 한 비제의 '카르멘'과 카를로 고치의 동화를 각색한 '투란도트'를 선보였으며 광주시립창극단은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5·18 당시 희생된 시민군의 남겨진 가족을 조망하는 연극 '망월, 달빛의 노래'를 무대에 올렸다.

광주시립발레단은 명작 발레 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았다. 10월에는 희극발레 '돈키호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공연에는 세계적인 안무가 크리스토프 노보그로츠키가 안무를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12월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호두까기인형'을 선보였다.

/김미은 기자 kdi@kwangju.co.kr

'별龔난 토끼' 새해를 맞이하다

은암미술관 '세화전' 28일~2023년 1월13일...체험행사도

'토끼와 떠나는 2023년 새해.'

2023년 계묘년(癸卯年) 토끼해를 맞아 세화전이 열린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중기)은 기획초대전 '별龔난 토끼전'을 오는 28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개

최한다. 전시 개막식 2023년 1월 3일 오후 2시.

우리에게 친숙한 '토끼전'은 대략 55종의 이본(異本)이 전하며 '별토(龔兔)전', '별주부전', '수궁가' 등으로도 불린다. 전시 제목 '별龔난'은 한자 뜻대로 '자라가 나오느', 한글 의미대로 '특별한'이라는 중의적 표현이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민화, 서양화, 캐리커처 등 그림과 함께 토끼 관련 소품 등도 전시된다.

참여 작가들은 사랑스럽고 친근한 토끼를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우리 옛 정서를 잘 보여주는 민화 부문에서는 김생수 작가가 '달에서'를 선보이며 김재춘, 김명주, 김 연, 김옥금, 박재희, 신나원, 신수자, 양희정, 오현서, 이선영, 윤문순, 이승훈, 이영애, 장경숙, 정정희, 차혜리, 최숙의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시각으로 해석한 작품을 전시한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복토끼'를 출품한 노의웅 작가를 비롯해 김해성, 이근표, 진경우, 한희원 작가가 작품을 출품했다.

또 토끼 그림을 많이 그렸던 독일 작



채진우 작 '쫄망이 스티커'

가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 작품 '어린 산토끼', 양중맞은 토끼가 인상적인 채진우 작가의 캐릭터 작품 '쫄망이', 다채로운 토끼 공예품 등이 전시되며 토끼와 관련된 지명에 대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중에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작품해설이 진행하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기념품도 준비했다.

한국전통채색화협회가 함께 주최하며 우정미술관이 후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필묵' 한 해를 마무리하다

금봉미술관, 31일까지 '다섯 번째 이야기' 전...수강생 68명 참여

광주시 북구 시하마을에 자리한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봉 박행보 화백의 작품 기증으로 문을 연 공간이다.

금봉미술관을 대표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매해 신년을 축하하며 열리는 '여흥에 먹 풀어'와 시원한 여름 나기를 기원하며 개최하는 '하선방화 여름부채전'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간판 행사는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참여해 매년 연말 개최하는 '필묵筆墨 벗하다'다.

강의가 개설된 후 수년 동안 꾸준히 수업을 받은 이들과 이제 막 문인화 등에 입문한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시에서는 회원들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이낸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筆墨 벗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전시 오는 31일까지 금봉미술관 1·2층 전관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개관 당시부터 개설됐던 문인화와 서예, 산수화, 민화 등 전통미술과 유화, 세밀화, 인물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참여 수강생은 김경민·김경화·김귀숙·최중호·한정남·한희자·홍아란 등 68명이다.

또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고현 조창현(문인화), 무전 광영주(서예), 송산 박문수(산수화), 남전 김



박래서 작 '참새'

연수(민화), 호원 김재민(민화), 강동권(유화, 수채화), 정미선(세밀화) 작가 등도 작품을 출품했다. 매주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